

항공3사, 통합법인 설립 계약 체결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등 항공3사는 지난 7월 28일 전경련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가칭)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항공3사는 이번 계약체결을 계기로 항공사업을 분리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 및 임시주주총회, 최종 이관자산 확정을 위한 자산실사를 거쳐 오는 9월말까지 통합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항공 통합법인은 이와 병행하여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 해외업체의 투자제안서를 접수하여 우선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해외업체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채권단의 출자전환 및 금융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내 항공산업은 다수 업체의 참여로 인하여 성장 잠재력에 못미치는 실적을 거두어 왔기 때문에 정부

역시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해 항공 통합법인의 설립을 적극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항공3사는 통합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정부는 지난 4월 22일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향후 정부 발주사업을 항공통합법인으로 일원화하고 정부사업의 안정적 창출을 통해 지원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항공통합법인은 항공3사의 가용자원을 결집하여 연구개발 및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통합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통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항공산업의 성장,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 통합법인은 설립시 자산 1조1천억원, 자본금 3천억원선으로 출범하고, 향후 채권단 출자전환 및 외자유치를 통해 부채비율을 100% 선으로 낮추어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출 예정이다.

우리협회, 파리에어쇼에서 3개사와 공동으로 한국관 운영

지난 6월13일부터 20일까지 40여개국에서 1,765개 업체와 200여대의 항공기가 참가하여 개최된 파리에어쇼에서 우리협회와 기아중공업(주), 삼성전자(주), 한국로스트왁스공업(주)는 공동으로 한국 전시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기아중공업(주)는 UH-60 헬기 및 F-16 전투기에 장착되는 항공기 착륙장치와 전차 탑재용 포를 전시하였으며, 삼성전자(주)는 최대 4,960kbps의 무선전송속도를 가진 차기 VHF 무선전송장비(SHRT-21)와 자체고장진단 기능을 갖춘 전자식 교환기(TTC-95K), 전차장열상조준경(KCPS) 등을

전시하였다.

한국로스트왁스공업(주)는 가스터빈엔진용 블레이드와 터빈로터 등의 항공기 엔진부품 등 70여종의 정밀주조 제품을 전시하고 활발한 수출상담을 진행하였다.

우리협회는 짝수년에서 홀수년 격년제로 바뀐 서울에어쇼2001의 해외업체 유치에 위한 활발한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외국 전시업체가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프랑스항공우주협회 및 일본항공우주협회와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파리에어쇼에 참가하지 못한 회원사의 홍보책자를 전시하여 통합마케팅에 나서는 등 전시활동을 하였다.

한편 이번 파리에어쇼는 전문가 9만여명을 포함 약 21만명이 관람하였다.

서울에어쇼 2001년 개최

지금까지 2년에 한번씩 짝수년도에 개최되었던 서울에어쇼가 제3회 대회부터는 2001년부터 매 홀수년에 개최된다.

우리협회는 제3회 서울에어쇼를 오는 2001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지난 96년부터 시작한 서울에어쇼를 3회 대회는 2000년 10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대형행사와 경쟁에어쇼 일정 등을 고려하여 1년 연기한 2001년부터 2년 주기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에어쇼의 정식 명칭을 '한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Korea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로 변경하고 여객기, 전투기, 헬기 등의 최신 항공기와 인공위성, 로켓 등 우주제품뿐만 아니라 탱크, 장갑차, 잠수함 등 지상 및 해상 군수장비도 전시하는 종합군수장비 전시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지금까지 서울에어쇼는 공군이 주최하고 우리협회가 행사를 주관했으나 제3회 행사부터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까지 포함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우리협회는 서울에어쇼를 동북아지역 시장을 대표하는 에어쇼로 육성하고 볼거리 위주의 행사에서 비즈니스 위주로 전환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세계 5대 에어쇼로 전시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리랑 1호 10월 12일 발사

국내 첫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가 오는 10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발사장에서 발사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위성사업부는 아리랑 1호(높이 2.26m, 직경 1m, 무게 500kg)가 오는 8월 20일께 김포공항을 통해 미국의 반덴버그 발사장으로 옮겨진 뒤 최종 성능확인 작업을 거쳐 한국시각으로 10월12일 오후 4시14분(현지시각 12일 0시14분) 발사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리랑 1호 제작진은 지난 4월 진공상태와 고온 및 저온 등의 우주환경 시험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5월에는 지상관제수신소와 지상자료수신소에서 영상자료의 송·수신상태 점검을 완료했다.

또 6월 22~23일에는 우리별 3호 제작에 참여한 연구원 80여명과 미국 위성체 개발회사인 TRW사 관계자 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최종 점검회의

(Preship Meeting)를 열고 위성체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밖에 한국우주정보소년단과 항우연이 공동으로 신청받은 청소년과 일반인 6만 8천명의 이름을 마이크로 칩(일명 플래쉬 톱) 3개에 담아 위성체에 장착하는 등 발사장 이동을 위한 모든 사전 작업을 마무리지는 상태다.

이에 따라 아리랑 1호는 현재 항우연 안에 있는 보관소로 옮겨져 이동 준비와 배터리 충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항우연에서는 특수 제작된 컨테이너 차량에 위성체를 실은 뒤 낮 시간대 고속도로를 이용, 대전에서 김포공항까지 이동할 계획이며 김포공항에서 미국까지는 KAL기를 통해 위성체를 실어 나를 방침이다.

한편 아리랑 1호는 고도 685km 상공에서 하루에 지구를 14바퀴 돌면서 고해상도(高解像度)의 전자광학카메라로 한반도의 지형 및 기상 관측과 해양오염 조사 등 과학탐사를 벌일 예정이다.

올 상반기 에어버스 수주실적 보잉사 놀러

올 상반기동안 대형항공기시장에서는 총 350대의 수주가 이루어졌으며 그중 에어버스가 65%를 차지하였다.

에어버스사의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234대를 수주하여 보잉사가 수주한 120대를 훨씬 능가하였다. 또한 상반기동안 수주취소와 기종변경까지 포함하면 순수주는 242대이며 보잉사는 104대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주실적은 105대의 수주실적을 기록한 A320 기종과 첫수주를 기록한 107석의 A318기종의 성공 때문이다. 반면에 보잉사는 737기종에서만 성과를 냈을뿐 717기종은 보잉사의 마케팅 활동에도 불구하고 수주실적을 기록하지는 못했다.

또한 보잉사는 상반기동안 총 451대를 인도함으로써 높은 인도실적과 낮은 수주실적으로 작년도에 1,786대를 기록하였던 주문잔고가 1,577대로 떨어

졌다. 에어버스사는 올 상반기의 수주호조로 지난해 42%였던 시장점유율이 47%로 상승하였다.

| 기종 | 인도 | 수주 | 취소/기종변경 | 순수주 | 주문잔고 |
|--|-----|-----|---------|-----|-------|
| Airbus | | | | | |
| A300-600 | 2 | 0 | 0 | 0 | 37 |
| A310-300 | 0 | 0 | 0 | 0 | 6 |
| A318 | 0 | 30 | 0 | 30 | 30 |
| A319 | 27 | 53 | -4 | 49 | 458 |
| A320 | 52 | 105 | +11 | 116 | 477 |
| A321 | 25 | 22 | +10 | 32 | 148 |
| A330 | 21 | 12 | -3 | 9 | 149 |
| A340 | 11 | 12 | -6 | 6 | 108 |
| Total | 138 | 234 | +8 | 242 | 1,413 |
| Boeing | | | | | |
| 717 | 0 | 0 | 0 | 0 | 115 |
| 737-3/4/5 | 25 | 6 | +4 | 10 | 17 |
| 737-6/7/8/9 | 139 | 91 | -7 | 84 | 891 |
| 747 | 26 | 12 | -12 | 0 | 76 |
| 757 | 36 | 1 | 0 | 1 | 95 |
| 767 | 25 | 8 | +1 | 9 | 118 |
| 777 | 46 | 2 | -2 | 0 | 206 |
| Total | 296 | 120 | -16 | 104 | 1,518 |
| Boeing(McDonnell Douglas types) | | | | | |
| MD-11 | 3 | 0 | 0 | 0 | 11 |
| MD-80 | 8 | 0 | 0 | 0 | 18 |
| MD-90 | 6 | 0 | 0 | 0 | 30 |
| Total | 17 | 0 | 0 | 0 | 59 |
| Boeing/MDC 계 | 313 | 120 | 16 | 104 | 1,577 |
| 총계 | 451 | 354 | -8 | 346 | 2,990 |

스페인 CASA-독일의 DASA 합병

스페인과 독일의 항공우주회사인 CASA와 DASA가 미국의 시장지배에 대항하기 위해 합병한다. CASA의 모회사인 국영 SEPI의 페드로 페레라스 사장은 지난 6월 13일 CASA는 올 여름 출범하는 새 통합회사의 지분 가운데 11~13.5%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교환 방식으로 탄생할 새 회사는 유럽 최초의 다국적 항공우주회사"라며 "항공산업에 대한 미국의 준패권적 지배에 대응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궁극적으로 프랑스의 에어로스파시알 마트라, 이탈리아의 알레니아, 영국의 에어로스페이스 등 다른 유럽 우주항공사들과 제휴도 추진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CASA주식은 에어버스 4.2%, 전투기 생산업체인 유로파이터 컴뱃 에어플레인스 13%, 아리안 스페이스 1.9% 등 유명 업체들에 골고루 분산돼 있다.

특히 그동안 CASA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민영화 방침이 알려지자 몇몇 회사들이 인수를 적극 추진해 왔다.

얼라이드 시그널-하니웰, 합병에 합의

장기간의 줄다리기 끝에 이루어진 얼라이드 시그널과 하니웰의 합병으로 미 항공우주 및 방산업체들도 새로운 합병 움직임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은 항공전자 미생산품목의 생산을 통해서 항공전자 분야의 전 품목을 석권하려는 양사의 경영전략 때문이다.

얼라이드 시그널사는 교통충돌방지 시스템, 지상 접근 경보 시스템, 비행 레이더 및 조종실 녹음장치, 기상 레이더 등 안전시스템 분야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하니웰사 역시 교통충돌방지 시스템, 지상 접근 경보 시스템, 비행 레이더 및 조종실 음성녹음장치, 기상 레이더 등 안전시스템 분야에 주력을 하고 있다. 현재 양사는 기상 레이더 및 교통정보, 충돌방지 시스템에서 경쟁자의 위치에 있다.

얼라이드 시그널사와 하니웰사는 지난 6월에 양사의 이사회가 주식교환방식의 합병에 합의한 바 있

다. 새로운 합병회사는 하니웰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며 항공전자, 엔진, 기타 보기류 분야에서 매년 매출액 10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합병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하니웰사의 본사는 기존 하니웰사가 위치한 미네소타의 미네아 폴리스가 아니라 얼라이드시그널사가 있는 뉴저지의 모리스타운에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양사의 합병으로 관리비용은 9억달러, 중복투자 개발비로 3억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현재 양사의 총 종업원은 127,400명이나,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약 4,500명의 인원이 감원될 계획이다.

얼라이드 시그널/하니웰 및 경쟁업체의 1998년 매출액 (단위:10억 \$)

| 회 사 명 | 항공전자 및 기타 보기 분야 매출액 | 그를 매출액 |
|--------------|---------------------|--------|
| 얼라이드 시그널/하니웰 | 7.05 | 23.5 |
| UTC | 3.00 | 27.7 |
| BF굿리치/클텍 | 3.23 | 5.5 |
| 릭웰-클린스 | 2.21 | 6.75 |
| 툼슨-CSF | 0.8 | 6.36 |
| 스 넥 마 | 1.02 | 4.41 |
| TRW | 6.0 | 19.0 |

제네럴 다이내믹스, 걸프스트림 매입

미국의 방위산업체인 제네럴 다이내믹스사가 걸프스트림 에어로스페이스사의 주식 구입을 통해 걸프스트림사를 매입했다. 양사의 최종합의서에 나타난 조건에 따르면 제네럴 다이내믹스사는 걸프스트림사의 주식을 주당 71.44달러에 매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양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아직 주주와 관계당국의 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이다. 양사의 경영진들은 이번 매입 과정에 있어

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으며 늦어도 올해 3/4분기 이내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1990년대 전반기에 항공우주분야사업을 포기한 바 있는 제네럴 다이내믹스사는 이번 매입을 통해서 다시 항공우주사업분야에 복귀하게 되는 셈이다. 장거리 비즈니스제트기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걸프스트림사는 걸프스트림V 및 걸프스트림IV SP 등 125대의 수주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까지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